

김가연·임요환 혼인신고 5년 만에 결혼식
연기자 김가연(44)과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36)
부부가 혼인신고 5년 만에 8일 결혼식을 올렸
다. 김가연과 임요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구로
구의 한 호텔에서 방송인 유재석의 사회로 결혼
식을 치렀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장미여관' 강준우 결혼식 정형돈 사회

그들 장미여관의 강준우가 7일 결혼했다. 강준우는 이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5년 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서 눈길을 끈 또 다른 스타는 개그맨 정형돈. 지난해 11월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정형돈은 7개월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방송 복귀와 연관짓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형돈 측은 "방송 복귀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7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특집은 '대리 정형돈'의 빈자리 에 '병가 중'이라고 표시해 시선을 모았다.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역대 최고 매출 기록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역대 최고 매출 기록 속에 막을 내렸다. 4월28일 개막해 7일 막을 내린 전주 국제영화제는 45개국 211편의 장단편영화를 상영하며 총 503회의 상영 횟수 가운데 219회의 매출 기록을 세웠다. 영화제 기간 전주를 찾은 관객은 7만 5000여명이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유우성 간첩 사건을 다룬 최승호 감독의 '자백'과 해지 연인인 문제를 담은 김진혁 감독의 '7년-그들이 없는 언론' 등 논란을 모을 만한 다규멘터리 영화를 잇따라 상영하며 시선을 모았다. 김영진 수석프로그램머는 이들 작품을 언급하며 이번 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700만명 돌파



황금연휴 극장가의 승자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사진)였다. 4일 본격 시작해 8일까지 이어진 연휴 동안 '캡틴 아메리카'는 약 300명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700만명을 넘어섰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캡틴 아메리카'의 흥행 속도는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모은 '어벤져스2'와 비슷하다"며 "장기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쟁한 이제훈 주연의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은 '캡틴 아메리카'의 기세를 넘지 못해 개봉 첫 주 100만 돌파에 실패했다.

신중현, 음반제작사와 저작권소송 패소



'록의 대부' 신중현(사진)이 1968년~1987년 발표한 28장 음반의 저작권을 놓고 음반제작사와 소송전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은 신중현이 "자신의 저작권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음반제작사 박성배 김레코드 사장의 권리를 넘겨받은 예전미디어의 저작권접권을 인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접권은 저작권의 하나로, 기존 창작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를 포함해 유통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기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1987년 이전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접권이 없어서 음반을 제작하는 등 비용을 부담한 음반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신중현은 저작권접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2012년 소송을 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5월 1일~5월 7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3,971,047	6,955,612	04/27
2	탐정 홍길동	639,836	643,986	05/04
3	극장판 안녕 자두야	187,256	188,335	05/04
4	주토피아	141,874	4,652,107	02/17
5	매직브러시	133,955	136,805	05/04
6	시간이탈자	85,989	1,187,048	04/13
7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81,005	81,171	05/04
8	다이노X 탐험대	67,615	68,553	05/04
9	위대한 소원	26,537	303,237	04/21
10	해어화	21,292	476,337	04/13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강우석의 '고산자'... 흥행요소 다 있네

강 감독 첫 사극영화 하반기 개봉
9개월 촬영 사계절 풍광 담은 대작
차승원·유준상·김민권 명품연기

'급'이 다른 대작이 온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였던 김정호의 삶이 스크린에 펼쳐진다. 차승원이 주연한 영화 '고산자:대동여지도'(제작 시네마서비스). 이달 4일 경상남도 함천에서 촬영을 마무리한 영화는 하반기 개봉을 확정하고 후반작업에 한창이다. 두 달로 전국을 누비며 손수 지도를 완성한 집념 강한 인물을 그리는 만큼 제작진 역시 사계절의 풍광을 빠짐없이 담기 위한 혹독한 대장정을 거쳤다.

'고산자'는 보통 4~5개월 동안 촬영을 진행하는 기존 상업영화와 비교해 월등히 긴 9개월의 시간을 들였다. 시대적 고증이 필요한 사극이라는 장르를 감안해도 촬영기간이 길다. 한 장면도 허투루 대할 수 없다는 연출자 강우석 감독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8월 17일 촬영을 시작한 '고산자'의 제작진은 과거 김정호가 그랬던 것처럼 전국의 숨겨진 장소를 일일이 찾아다녔다. 알려지지 않은 풍광을 찾아내 카메라에 담아야 했던 탓에 촬영장소를 옮길 때마다 200~300km씩 이동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배우부터 제작진까지 100여명의 스태프는 한여름의 폭염은 물론 겨울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 '고산자:대동여지도'가 9개월의 촬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연출자 강우석 감독(가운데)은 출연진과 제작진 등 100여명의 스태프를 이끌었다.

내내 혹한을 몸소 견뎌냈다.

영화는 김정호의 삶에만 그치지 않고 그가 만든 지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의 대결까지 그린다. 그 대결의 배경은 산과 바다를 넘나든다. 그 한복판에 섰던 주인공 차승원은 일일이 찾아다녔다. 알려지지 않은 풍광을 찾아내 카메라에 담아야 했던 탓에 촬영장소를 옮길 때마다 200~300km씩 이동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배우부터 제작진까지 100여명의 스태프는 한여름의 폭염은 물론 겨울

대표작으로 '공공의 적' 시리즈와 '이끼' '전설의 주먹'까지 감각을 과시해온 강 감독은 '고산자'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망설임 없이 나섰다.

박범신 작가의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화를 결심한 강우석 감독은 "오로지 백성을 위한 지도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일생을 걸었던 김정호의 삶을 스크린에 담으려 정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을 통해 강 감독은 주인공 김정호가 외딴 섬 독도처럼 대자연의 한 복판에 홀로 들어선 웅

장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주연 배우 차승원에게 대한 기대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차승원은 지난해 초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를 통해 전성기 인기를 되찾은 뒤 쏟아지는 여러 제안 속에 '고산자'를 택했다. 작품과 제작진에 거는 믿음과 기대가 작용했다. 그런 차승원과 만남에 강우석 감독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설레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고산자'는 최근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가진 공통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진정한 리더로 평가받아야 할 희생을 그린다. 가족에 역시 놓치지 않았다.

개성 강한 배우들도 참여했다. 김정호와 대립하는 흥선대원군 역은 유준상, 김정호를 지지하는 인물 배우 역은 김민권이 각각 맡았다. 관객에게 고르게 인성발하는 연기자들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미생 하대리' 전석호, '10년 사랑' 결실

21일 회사원 여자친구와 결혼



배우 전석호(32·사진)가 오랜 순애보의 결실을 맺는다.

8일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전석호는 '부부의 날'인 21일 10년 동안 교제해온 회사원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이에 며

칠 전부터 함께 작품에서 인연을 맺은 관계자 등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리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가고 있다.

전석호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할 때 여자친구를 만난 뒤 2년 전 케이블제널 tvN 드라마 '미생'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특히 '미생'으로 한창 화제

를 모았을 당시 여자친구의 존재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출연 중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여자친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어느 정도 결심한 듯 "배우여행으로 신혼여행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결혼에 대해 그림을 그려온 전석호는 2014년 12월 '미생' 종영



이후 더욱 바쁘게 활동했다. 2015년 연극 '트루 웨스트', 2016년 '인디언 블로그' 그리고

지난달 10일 막을 내린 '터키 블루스' 등 무대에 올랐다. 또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배우나 등이 속한 '셋발당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반기부터는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 활약한다. 7월8일 첫 방송

하는 tvN 금토드라마 '로 와이프'를 통해 2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또 7월7일 개봉 예정인 '김선달'을 포함해 '가족계획' '루시드림' 등 영화로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전석호가 여자친구와 웨딩마치를 올리는 21일에는 본지 단독 보도(4월8일자)로 알려진 구혜선(32)과 안재현(29)도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출연드라마 방송일정 몰랐나? 무책임한 박소담

방송시기 비슷한 드라마에 또 주연
사전제작 '신데렐라' 편성불발 우려

연기자 박소담이 KBS 2TV 새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에 출연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구설에 올랐다. 이미 사전제작 드라마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신데렐라) 주연을 맡고 한창 촬영 중인 상황에서 새롭게 출연기로 한 드라마의 방송 기간이 일정부분 겹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칫 '겹치기' 출연 논란에 휘말려 비난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음은 물론 이미 제작 중인 '신데렐라'의 편성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신데렐라'는 7월 방송을 목표로 사전제작 중인 드라마.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이달 말 촬영을 마무리하고 방송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지상파 방송사 등과 편성을 논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소담은 6월20일부터 방송하는 '뷰티풀 마인드'에 출연기로 했다. '신데렐라'가 제작사의 계획대로 방송된다면 두 드라마의 방송 기간이 겹칠 가능성도 크다.

HB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박소담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HB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박소담은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뷰티풀 마인드'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의 출연자가 새롭게 출연하는 드라마가 먼저 방송하게 되면 어느 방송사가 사전제작 드라마에 편성을 내어줄 것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어 "조연도 아니고 주연 연기자 같은 시기에 두 편의 드라마에 동시 출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소담은 이달 초 '뷰티풀 마인드'의 대본 리딩과 드라마 티저영상 촬영에 불참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 장혁, 윤현민, 박성영 등 전 출연자가 참석한 자리였지만, 여주인공인 박소담만 빠져있다. KBS 측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의 출연자가 새롭게 출연하는 드라마가 먼저 방송하게 되면 어느 방송사가 사전제작 드라마에 편성을 내어줄 것인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어 "조연도 아니고 주연 연기자 같은 시기에 두 편의 드라마에 동시 출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o@donga.com



박소담

'응답하라 1980' 맞나요? '응답 시리즈' 내년 방송

신원호PD, 스태프에게 제작 알려
시대적 배경 등 구체적 사항 미정

드라마 '응답하라'의 제작진이 새 시리즈 제작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8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응답하라 1988'(응팔) 제작진은 다음 시리즈

를 2017년 방송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출자 신원호 PD가 '응팔' '응사' '응칠'에 모두 참여했던 주요 스태프에게 제작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손발을 맞췄던 구성원을 다시 모으는 것이 제작의 첫 단계"라며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고 말했다.

방송을 거의 1년이나 앞두고 있음에도 스태프의 일정을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응답하라'만의 성격이다. 과거의 이야기를 그려 배경과 소품 등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해 스태프가 다른 작품과 병행하거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미리미리 이들에게 계획을 전달해 시간을

맞추려는 계획이다.

제작 소식이 알려진 만큼 극중 시대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선 세 시리즈는 각각 1997년과 1994년, 1988년의 상황을 현실감 넘치게 재구성해 복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열혈 시청자는 1월 '응팔' 종영 직후 '시청지도서' 편에 카세트오디오의 라디오 주파수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며 '응답하라 1980'을 조심스럽게 추리하기도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